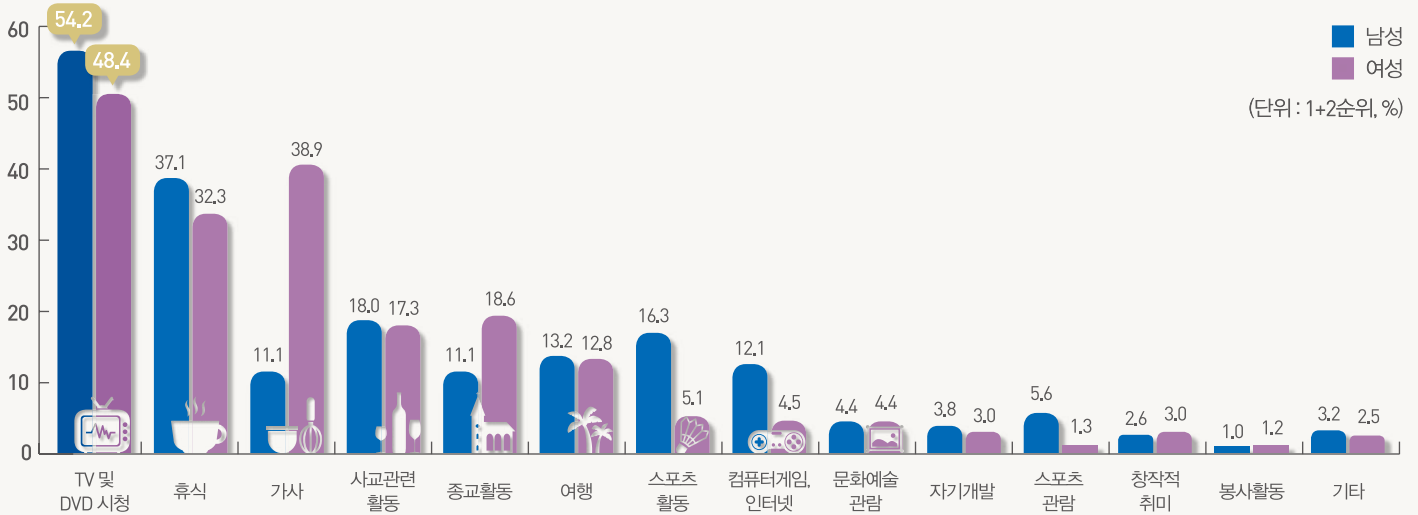




## 01 여가활동 |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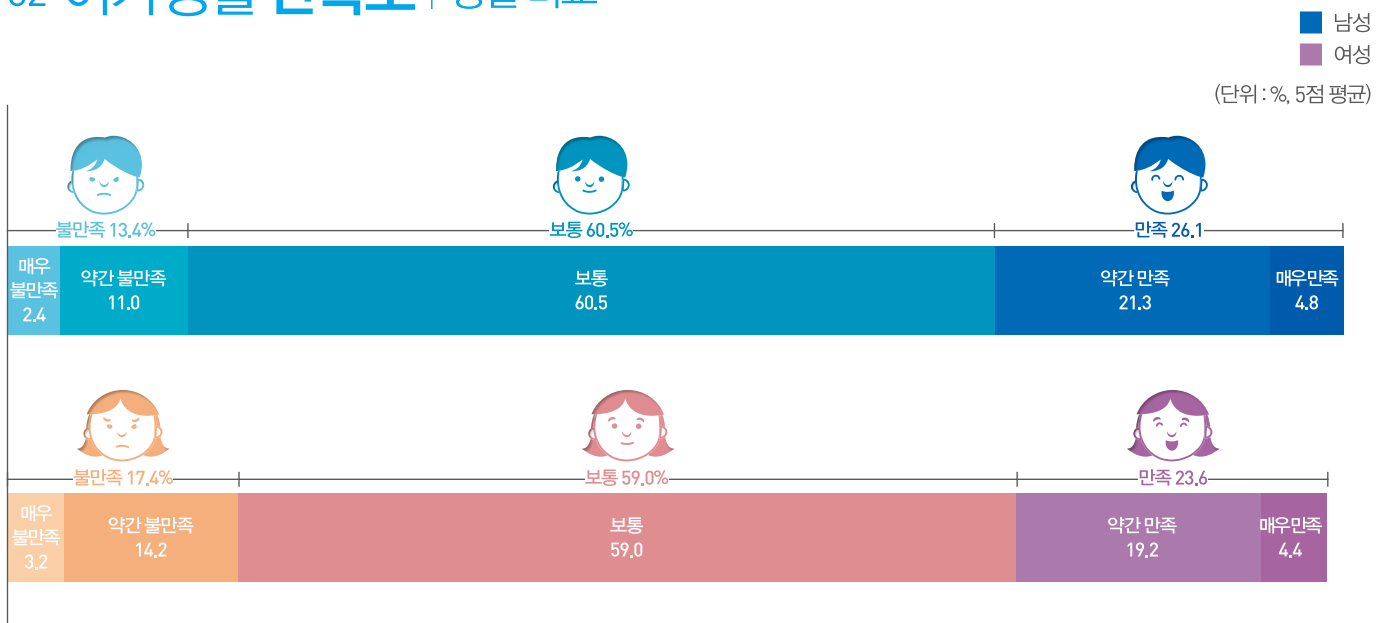


성별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남성이 'TV 및 DVD 시청'(54.2%), '휴식'(37.1%), '사교 관련 활동'(18.0%), '스포츠 활동'(16.3%), '여행'(13.2%), '컴퓨터 게임, 인터넷'(12.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TV 및 DVD 시청'(48.4%), '가사'(38.9%), '휴식'(32.3%), '종

교 활동'(18.6%), '사교 관련 활동'(17.3%), '여행'(12.8%)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은 '가사', '종교 활동'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2014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 02 여가생활 만족도 |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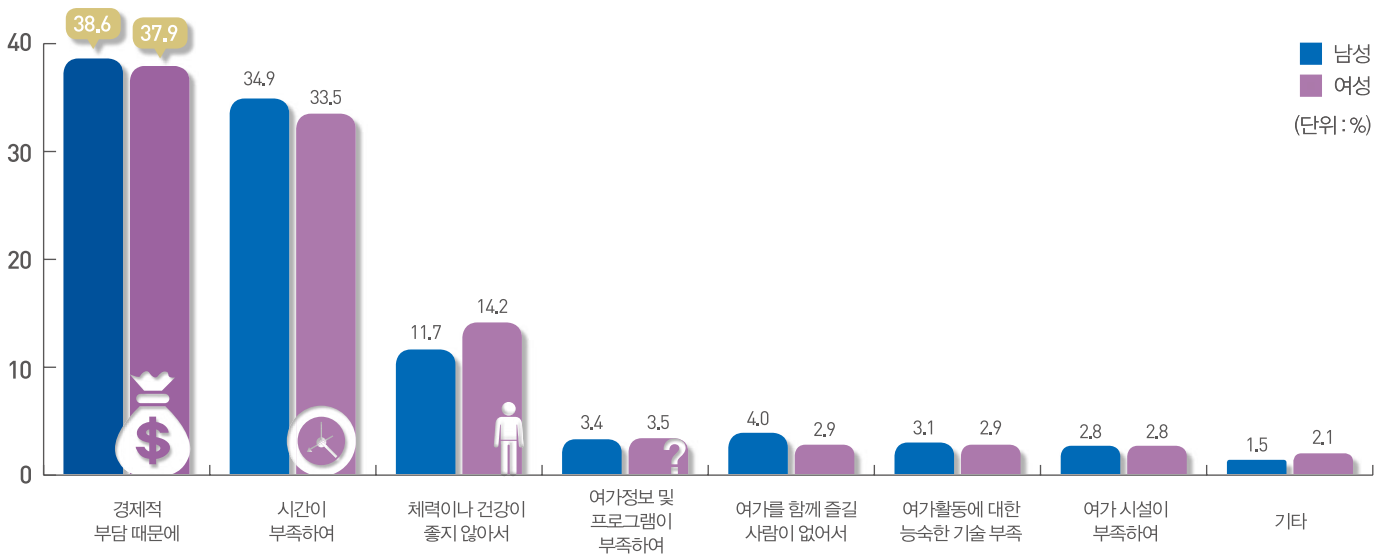


2014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평균 3.11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만족'(24.8%) 비율은 2012년(31.8%) 대비 7.0%p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남성이 13.4%, 여성이 17.4%

였으며,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하는 남성은 26.1%, 여성은 23.6%로 조사됐다. 5점 만점 평균으로 살펴봤을 때, 남성의 만족도가 3.15점으로 여성(3.0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2014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 03 여가생활 불만 이유 | 성별 비교



대전광역시 2014년도 사회조사에 의하면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남성(38.6%)과 여성(37.9%)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이 부족하여'가 남성 34.9%, 여성 33.5%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로는 남성은 불만의 이유를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4.0%)로 드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성은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14.2%)를 불만의 이유로 뽑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2014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리더십 워크숍 개최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와 함께 지난 7월 6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리더십 워크숍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여성친화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이들의 성인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주제로 조연숙 젠더와 정책연구소장의 '지역사회정책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발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가치, 정책과제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미원 With One 대표의 '오감만족, 여성친화도시 조성 리더되기'라는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리더의 필요 요건을 알아보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문제 바라보기를 통해 여성친화적인 시각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됐다.

